

10월 24일 뉴스 종합 정리

2008년 10월 24일

리서치센터

02) 2009-7087

chlee@leading.co.kr

| 제목 | 주요 내용 |
|---|--|
| 뉴욕 증시 혼조 [다우: +2.02%] [나스닥: -0.73%] | 뉴욕 주식시장이 변동성 장세를 펼친 끝에 혼조세로 마감. 다우지수와 S&P500지수는 상승 마감 하였으나, 나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하였음. |
| 유가 사흘만에 반등 [WTI: \$67.84(+1.6%)] | 국제 유가는 사흘만에 반등, 석유수출국기구(OPEC)가 내일 긴급회의에서 감산에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주된 영향을 미쳤음. |
| 美 3Q 주택차압 사상 최고 [76만 5,558건 +71%(YoY)] | 미국 정부의 각종 구제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택차압 foreclosure 건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, 이에 따라 미국의 경기후퇴 recession 우려감이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. |
| 라이보 하락 행진 주춤 [3개월 라이보 3.535%(-0.06bp)] | 달러 자금시장의 경색 수준을 가늠하는 라이보(런던은행간금리)의 하락세가 주춤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. 각국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이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지속되면서 라이보의 하락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. |
| 주간고용 악화 [47만 8천명+1.5만명] | 주간 고용 악화에는 허리케인 '아이크'로 인해 발생한 1만2000명의 실업수당청구가 주된 영향을 받았음. |
| 소니, 연간순익전망 38% 삭감 | 일본의 전자회사인 소니는 연간 수익 전망을 1500억엔으로 기존 전망치를 38% 삭감. |
| 외평채 CDS프리미엄이 500bp까지 급등 | "코리안 리스크"가 부각되면서 원화가치가 하락하고 하락세를 보이던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섬. |
| 총액대출한도 현행 6.5조원에서 9조원으로 증액 | 한국은행 금통위가 총액대출한도를 현행 6.5조원에서 9조원으로 증액해 유동성 공급에 나섬. |
| CD금리 10일 연속 상승 | 91일만기 CD금리는 6.16%로 전일보다 0.01%포인트 상승 CD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 은행채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. |
| 은행채 직매입 가능성 | 이성태 한은총재는 국정감사에서 "4분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25조원을 모두 매입해 줄 수는 없다"면서도 은행채 직매입 가능성은 일부 열어놓음. |
| 수출입은행 1.5억불 외화 조달 성공 | 수출입은행이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한국계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증장기 외화조달에 성공. |

<참고>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.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